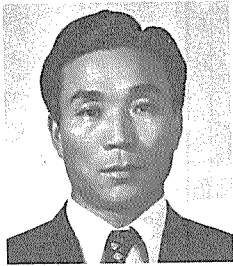


## 건강할 권리 요구 확대에 따라 설치!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

- 강동의원 개원의 의의



서 기 홍

과거 한반도의 국민 건강을 위협해 왔던 질환은 대부분이 전염성 질환으로서 가난했던 당시의 실정으로서는 속수 무책인 질병이었지만 차츰 의학적인 발전에 힘 입어 퇴치가 가능했던 질환이었다.

그때만 해도 건강과 질병간의 경계가 분명하여 건강에 대해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급속도로 변천함에 따라 질병의 유형이 전염성 질환에서 비전염성 질환들로 탈바꿈 되면서 의학적인 발전이나 생활의 윤택에서 오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위 문화병이라 불리우는 성인병 질환으로 시달리게 되었다.

누구나 건강이 소중하다는 인식은 고양되어 있으면서도 수명이 늘어나고 질병이 만성화 됨에 따라 각종 환경변화에서 오는 건강의 위협 등으로 인해 건강의 단정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불확신 경향이 점차 사회적으로 누적되어 가는 현상에 비례하여 건강에 대한 의료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속에 최근 각 의료기관의 검진 형태는 치료 행위에서 질병의



“검사 희망자의 시간적  
편의와 희망자의 증가에 따라  
보다 원활하고 능률적인  
검사체계 확보”

조기 발견 및 건강관리 차원의 예방의학적  
인 의료행위로 변모 되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1964년도 기생충 박멸협회의 창립과 더  
불어 기생충 구제 사업의 성공적 완수 및  
단계적인 내, 외부의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온 역사를 발판 삼아 1982년도에 성인병  
(비전염성 만성 질환)의 퇴치목적으로 건  
협이 창립된 이래 어느덧 7년이란 연륜을  
맞고 있다.

그간 각 시도의 13개 지부가 국민보건향  
상을 위해 전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을 매진  
하여온 결과로 인해 명실공히 전 국민의  
건강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보건계몽기관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 바탕 위에 건강 관리에 대한 의료 요  
구증가의 효율적인 대처 차원으로 강동의  
원을 개원하였다.

근래에 들어 성인병 증가에 따른 심각성  
에 기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이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부

쩍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차츰 권리로  
서 인식되어가는 시점에 그동안 우리 서울  
시 지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광역화에서  
오는 원거리 지역의 수검 요구자에 대한  
불편 해소 및 보다 더 효율적인 보건계몽  
활동을 확산하여 가일층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한다는 목적아래 조금 늦은감이 있지  
만 지난 9월 부속강동의원(천호동 소재)을  
개원하여 검사업무 및 건강상담 등 정상업  
무를 실시하게 되었다.

성인병의 유형이 최근들어 나이와 성별  
에 관계없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  
를 던져주고 있는 즈음 그에 따른 사람들의  
건강권 확보에 산파로서의 역할은 당연한  
시대적 사명일 것이다.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일깨워 주는데  
일임을 담당하게 될 강동의원의 출발에 물  
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및  
직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필자=건협 서울지부 사무국장〉